



KOREA UNIV. SEJONG

AICS News Letter

작전명!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청춘!



2025_01.ver

CONTENTS

Vol. 5 | 2025-2.ver

01 최두호 학과장님 인터뷰

학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장점부터 비전까지

02 곽병일 신임 교수님 인터뷰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지,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어떤 연구생을 모집하시는지 알아보아요!

03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동아리

암호학과 해킹을 마스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학술동아리 최신 근황

04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원생 일지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되신
선배님을 찾아가서 마음껏 괴롭혀보았습니다!



05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엠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행복한 추억 쌓기
우리들의 청춘으로

06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학생사회를 책임지는 단체,
학생회와의 인터뷰

07 선배님의 추천 맛집

조치원 6년차 선배님의 또간집을
여러분께만 몰래 알려드립니다

08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새내기 인터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푸릇푸릇 새내기,
그 설레임과 함께합니다.

COVER STORY

표지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우들이 신정문 앞에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담았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분위기를 담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왼쪽 부터 순서대로 구자원, 김재운, 이준호, 심재규, 정희민 이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과장, 최두호 교수님을 만나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리 학과의 운영 방향과 교육적 비전,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과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학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학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교육철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학과장님의 생각과 우리 학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해보고 바란다.



▲최두호 교수님

Q. 학과장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5학년도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 최두호입니다.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2002년도에 학위를 취득한 이후,
같은 해부터 19년 동안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 사이버보안부서에서 연구개발 업
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학과와 연이 있었던 때는 21년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로 변경이 될 때였습니다.
21년도 부임 이후 지금까지 5년 정도 학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는 양자 보안입니다.
양자 보안이란 양자컴퓨터의 등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RSA, ECC 등)이 해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기술을 말합
니다.

아직 대용량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개발 중이며
그로 인해 사전에 양자 컴퓨터로부터 기존 암호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버틸지에 대한 분석을 하며,
기존 IBN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 양자 회로를 구현함으로써
암호 알고리즘이 깨지는 실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암호 엔지니어링에 관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프로토콜 등의 이론을 통해 만들어진 암호가 PC, 스마트카드 등에 사용이 되고
이러한 암호들을 하드웨어 구현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을 통해 부채널에 안전한 하드웨어, IoT와 같은 경량적인 기기에
경량화된 암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합니다.

Q. 학생들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A.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학과의 모습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인재란 시가 계속 화두가 되는 지금, 시의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에 유명세를 탄 GPT가 그 예시라 생각합니다. 초창기 시가 나왔을 때 예술가들은 위협이 되지 않는 직업군이라 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가 예술 쪽에서 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어느 직업군이 생기고 사라질지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시와 함께 발전해 가는 상황 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면 **시에게 질문을 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학과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호기심이 많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학과 내에서 **분야 상관없이 많은 걸 경험하고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의 이름이 인공지능사이버보안인 만큼 수학, 정보보호, AI 등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학과를 다니며 **융합적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점점 복잡해지고 개인화되는 사회에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T, 개강총회 등의 **공감과 어울릴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신입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파편화를 방지할 방안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에 학생 여러분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Q. 현재 커리큘럼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앞선 질문과 연결해, 우리 학과를 다시 강조해 보자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이 합쳐진 학과**입니다. 정보보호학과로 있는 곳들은 많지만, 인공지능을 함께 다루는 학과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학과만의 차별점이라 생각하며, 이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커리큘럼에서도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커리큘럼에는 2개의 트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 소양** 트랙 커리큘럼입니다. 2학년부턴 4학년까지 차근차근 밟아가며 LMN 직전까지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 원리**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잘 따라올 경우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바,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연구 등의 직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직종들을 가지며 시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가 사용 안 되는 곳은 없으며, 시가 기반 기술로 하는 분야들로 점차 확산이 되어가는 추세에 맞게 우리 학과 커리큘럼은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학과 차원에서 진로 지원(진학/취업)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가요?

A. 기본적으로 학부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3학년 때 신청하며, 심화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2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여러 가지 장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 지원의 경우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4학년 필수 과목인 ‘산학연계 캡스톤 디자인 과정’입니다.

캡스톤 과정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했던 공부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개설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에 계신 멘토님들을 초청하여 멘토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 일부를 발표 주제로 두어 학생들과 멘토님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주제들을 제시함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다양한 최신 기술에 관한 이해도 증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학술대회, 여러 특전 등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1학년부터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이론 과목, 실습 과목 등에서 본인들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기록해 둔 후 추후 취업할 때 학부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대학원 진학 ITRC 대학 연구원 사업입니다.

연구생이 되면 무조건 ITRC의 구성원이 되는데, 개별 구성원들은 각 교수님 프로젝트에 배정되게 됩니다. 인건비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번 대학원생이 전체 3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원에서 개발한 연구 결과들을 실무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학과장님께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의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4년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학생들도 긴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1학년부터 취업 준비에 신경을 쓰는 추세이던데, 취업을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학업을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니 많은 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신을 인생에 담아낼 시간이 없어집니다.

입시 준비하며 많이 지쳤을 텐데, **대학교에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호기심을 펼치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진로도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단순한 꿈이라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길들을 열 수 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많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학생들이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저는 전진하였으면 합니다.

전진하다 보면 다시 재도전할 기회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걸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걸어왔기에 어떤 길인지 보이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학생들은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곽병일 교수님 인터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신임 교수
곽병일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다.



▲ 곽병일 교수님

Q.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서 새롭게 교수직을 맡게 된 곽병일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블록체인, 정보보호 개론 등 다양한 보안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와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 주요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박사 과정과 연구교수 시절부터 이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보안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모빌리티 보안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아, 함께 연구하며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나 중요 정보 탈취 같은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차량 보안을 넘어 ICT 및 IoT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기반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실 이름도 Data-driven Cybersecurity Research Lab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연구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아직 학교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우선은 수업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연구실 석사 연구원과 함께 경량화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보안 연구를 핵심으로 이어가면서, 이를 모빌리티 보안, 로봇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며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어떤 분야와 강의를 학부생들에게 가르치시나요?

- A. 현재 학부에서 ‘사이버해킹기초및실습’과 ‘블록체인과분산시스템’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해킹기초및실습’에서는 웹 보안을 중심으로 해킹의 기법과 원리를 배우고,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안 대응 방안을 익히도록 합니다.
 - ‘블록체인과분산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두 과목 모두 사이버보안의 기초와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과의 강의, 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강의, 연구, 관계 이 세 가지 요소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과 지식을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 그리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간의 좋은 관계가 연구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라(극 성향 ^^;;) ‘관계’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과 더 소통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 대한 교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학과의 이름이 이미 비전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AI)’은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핵심 기술이고, ‘사이버보안’은 그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이 학과는 그런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벌써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학과에서 재미있는 수업과 즐거운 연구 생활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학과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할 학·석·박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니, 연구실(과학기술2관 204호)을 찾아오거나 이메일(kwacka12@korea.ac.kr)로 연락 주세요!

대학 내 보안 동아리 활동, 실력 향상과 커리어 개발의 중요한 기회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대학 내 보안 동아리 활동은 단순히 실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커리어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는 대표적인 보안 동아리 두 곳이 존재하는데, 바로 KOREC와 KUality이다.
이들 동아리는 모두 '실전 보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운영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



KoRec - 암호학 기반, 자유로운 연구 동아리

KoRec는 암호학을 중심으로 한 보안 동아리로,
암호학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보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OREC은 암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최신 기술을 동아리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oRec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신입생 대상 암호수학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암호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활동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암호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암호수학의 기본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KOREC 내에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급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며 암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암호학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부채널 분석 실습이다.

이는 실제 암호 장비에서 전력이나 시간과 같은 측정값을 분석함으로써
암호 시스템의 물리적 취약점을 실험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이다.

부채널 분석은 고전적인 암호학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암호 시스템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실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 장비의 작동 중 발생하는 전력 소비나 실행 시간이 외부에서 측정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해 암호 시스템의 보안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암호 기술의 실전적 약점을 실험하고,

보안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화이트박스 암호 구현**이다.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암호 모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활동으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보안 모듈 개발**을 다루고 있다.
화이트박스 암호는 암호 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암호화와 복호화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기술이다.
KOREC의 동아리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 환경 보안**을 실습으로 다루며,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보안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KoRec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동아리원들은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KoRec은 **교수님 산하의 연구실**과 연계되어 있어,
동아리원들이 전문적인 자료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적인 접근이 잘 갖춰져 있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암호학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KQuality - 실전 해킹과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형 동아리

KQuality는 실전 해킹 능력 향상과 커리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보안 동아리로,
행정팀과 **교육팀**으로 나뉘어 정기적인 **특강**과 **멘토링**,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동아리원들이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KQuality는 **실전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암호학** 등을 다룬다.
또한 매년 보안 대회 흐름에 맞춰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KQuality의 주 프로젝트 중 첫 번째는 **LLM 기반 오픈소스 취약점 탐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AI)을 활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분석한 후 정리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오픈소스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은
실전 분석 능력과 문서화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실습이다.
이 프로젝트는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산업별 사이버보안 규제 비교 스터디**이다.
각 산업군마다 상이한 보안 정책과 법적 규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활동으로, 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보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보안 분야에서 기술적 이해와 더불어 **법적 규제**와 **정책적 관점**에 대한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다.
또한, 이 활동은 공모전 준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보안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KUality는 또한 보안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자들이 **멘토링**을 담당하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특강**을 제공한다. 동아리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전 해킹 능력**을 높이고, **커리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전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KoRec과 KUality, 두 동아리의 차별화된 특징

두 동아리는 모두 보안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방식은 명확히 다르다.

KoRec은 암호학 이론에 중점을 두고, 심화 연구와 실습을 통해 암호학의 깊이를 탐구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달리 KUality는 실전 해킹과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KUality는 보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전 능력을 강화하며, KoRec은 암호학의 깊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KoRec은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며, 암호학의 깊이 있는 탐구와 연구 주제의 자율적 설정이 특징이다. KUality는 실전 해킹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형 커리큘럼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실전 능력과 커리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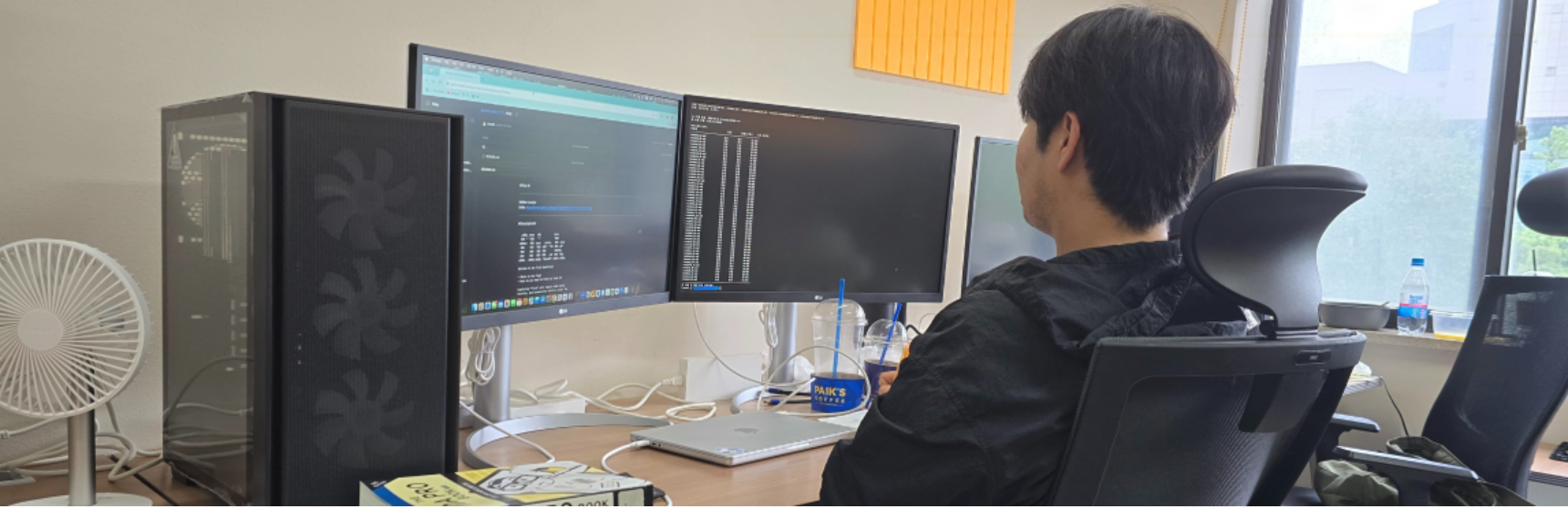
코렉과 퀄리티,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KoRec과 KUality 두 동아리는 모두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한다.

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KoRec에서 암호학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KUality에서 실전 해킹 기술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두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길에서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취재 : 뉴스레터 5기 심재규('24)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원생 이지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본 뉴스레터에서는 '사이버보안학과'의 졸업생이자 현재 User-centered Security Lab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전일 대학원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전일 대학원생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석사 생활의 일상과 연구,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보안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지전일입니다.
저는 현재 User-centered Security Lab에서
조금환 교수님의 지도로 석사 1년차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학원 생활에서 일상적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연구 외에 하시는 활동이 있나요?

A. 저는 보통 오전 10시쯤 연구실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 시간에는 논문을 읽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주로 실험이나 분석 업무를 합니다.
저녁 시간은 주로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취미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분석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나 사고 이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고 있으며,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읽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Q. 연구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거나 보람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다룬 최신 논문들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접할 때면 저 또한 자극을 받고 연구 의욕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가 잘 진행될 때는 힘들었던 일들도 잊게 되고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연구실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고 서로 협력적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을 비롯해 연구실 구성원들이 서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화목한 분위기 덕분에 연구를 수행할 때 심리적 부담이 적고, 연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저는 석사 졸업 이후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공공기관이나 국가 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즐거운 추억속으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MT

5월 9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의 MT가 시작되었다.

이번 MT는 시험 기간 동안 쌓인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 함께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진행되었다.

MT 전날에는 조별 전야제를 통해 서로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어색했던 사이도 한층 가까워졌다.

MT 당일 아침, 과학기술 2관 217호에 모인 학생들은

간단히 김밥으로 식사를 마친 뒤 버스에 올라 태안 리치밸리 펜션으로 향했다.

약 두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후, 학생들은 짧은 자유 시간을 가지며

이동의 피로를 풀고 본격적인 일정을 준비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학생들은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교수님들의 학과 연구실 소개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고, '노래 제목 맞추기', '야! 왜!', '인물 퀴즈' 등의 다양한 게임을 통해 모두가 웃고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난 뒤에는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끼와 흥을 마음껏 발산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따뜻한 불 앞에 둘러앉아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에 군침을 삼키며,
준비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다.
테이블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중간에는 교수님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바비큐가 끝난 후에는 숙소로 들어가 자유 시간을 가졌다.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게임을 하면서 밤이 깊도록 웃음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학우들은 함께 숙소를 정리하고 짐을 챙기며, 1박 2일간의 즐거웠던 MT를 마무리했다.
이번 MT에 대해 24학번 학생회장 정회민은
“처음 MT 준비는 학생들이 짧지만 즐겁게 놀다 가길 바라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인원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고,
'정말 재밌었다', '짧았지만 잘 놀았다'는 학우들의 따뜻한 반응에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 없이 함께 준비해준 학생회,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잘 따라준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이번 1박 2일 MT는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MT는 학우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겼고,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취재 : 뉴스레터 5기 심재규('24)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 인터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제 9대 학생회 너나들이를 만나보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뉴스레터 기자단 24학번 정회민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제9대 학생회 '너나들이'의 각 부서에서 활약 중인 차장과 국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겪은 고민과 성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는 단순히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우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학생회의 숨은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 학생회가 전하는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열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획국 차장 - 권호영 (24학번)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9대 학생회 '너나들이' 기획국 차장 24학번 권호영입니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Q. 차장으로서 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A. 저의 스타일은 포용적이고 소통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국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명인 부서인 만큼 모든 국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Q. 기획국을 이끌면서 팀워크와 운영 측면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소통”이었습니다. 기획국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국원이 편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획국은 학과 내부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면, 행사 기획의 완성도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통은 단순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행사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 권호영 학우

Q. 기획을 진행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기준이나 방식으로 판단하시나요?

A.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답을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국 회의를 열어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회의는, 행사의 목적과 학우들에게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Q. 학생회 활동이 본인의 대학생활이나 개인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학생회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협업 능력이 크게 성장하였다고 느낍니다.
기획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국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타 부서와 협력해 함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협력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을 조율하거나, 때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학생회는 단순한 교내 활동을 넘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 기회였습니다.

홍보국 국원 - 오승윤 (25학번)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 홍보국 25학번 오승윤입니다.
처음 학생회를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많은 업무량과 국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 이러한 걱정보다 더 큰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오승윤 학우

Q. 예상했던 학생회 활동과 실제는 어떻게 달랐나요?

A. 막상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처음 접하는 업무들과, 어색한 국원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밝고 유쾌한 학생회 분위기 덕분에, 어색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님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 학생회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회의나 행사 준비 경험이 있나요?

A. 학생회에서 진행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과기대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입니다. 부스에서 어떤 게임을 진행할지, 어떤 음식들을 판매할지에 관한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고, 그 아이디어들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함께였기에 몸은 지치지만 너무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Q.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A. 저는 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국은 다양한 행사나 공지에 관한 카드뉴스, 포스터, PPT 등 다양한 시각 자료 제작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작 과정에서 처음 사용해 보는 툴을 다루느라 아주 서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보국장님의 친절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점차 실력이 나아졌고, 책임감과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작한 자료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Q. 앞으로 학생회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활동이 있나요?

A. 홍보국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학과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방향성과 전달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너나들이'라는 학생회의 취지에 걸맞게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홍보 활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무국 국원 - 오유린 (25학번)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에 재학 중인 25학번 오유린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 '너나들이'에서 사무국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꼼꼼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유린 학우

Q. 정확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를 위해 평소에 특별히 신경쓰는 습관이 있나요?

A. 사무국은 문서 작업이나 일정 관리처럼 세심함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작은 실수도 전체 일정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수행할 때 두 번 이상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To-do 리스트를 단순히 '해야 할 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단계까지 나눠서 작성한 뒤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실수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Q.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A.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당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하고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빠르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Q. 사무부서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사무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학생회 전체 운영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정리, 공문 작성, 일정 공유 등은 다른 부서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업무들이며, 사무국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때 다른 부서들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사무부서에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방식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A. 기회가 된다면 학생회 아카이브 활동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학기별 주요 활동, 행사, 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후 들어오는 학생회 구성원들에게 자료로 공유한다면 단순한 문서 저장을 넘어서 학생회의 역사와 방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부서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운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의 추천 맛집

조치원의 맛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미식 여행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조치원읍에 위치한 맛집과 분위기 좋은 카페들을 소개한다. 조치원에서 하루를 맛있게 특별하게 만들어줄 두 곳의 음식점과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할 두 곳의 카페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1. 덕윤당

조치원역 인근에 자리한 '덕윤당 오리요리'는 오리 육수를 베이스로 한 이색 라멘과 다양한 오리 요리로 입소문난 맛집이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오리 라멘은 1인 1메뉴 주문 시 밥 리필이 무료로 제공되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으며, 오리 제육볶음은 넉넉한 양과 고소한 맛으로 식사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쫄깃바삭한 오리 튀김 사이드는 사이드 메뉴로 제격이며, 모던하고 아늑한 인테리어 덕분에 혼밥부터 가족 모임, 데이트까지 두루 좋은 분위기를 선사한다.

친절한 서비스와 사장님의 정성까지 더해져 재방문 욕구를 자극하며, 가끔 대기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

♥ 인기 메뉴 : 오리 라멘, 오리 제육볶음, 오리 튀김



2. 세븐스트리트

조치원에서 이국적인 멕시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븐스트리트'은 타코, 퀘사디아, 파히타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특히 화이트 스테이크와 새우가 어우러진 하프앤하프 파히타는 부드러운 고기와 탱글탱글한 새우가 또띠아와 소스와 잘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멕시코 음식의 신선한 맛과 세련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이다.

♥ 인기 메뉴 : 하프앤하프 파히타, 머쉬룸 퀘사디아



3. 비브 세종조치원점



세종시 조치원 구도심에 자리한 '비브 세종조치원점'은 깔끔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 속에서 고급 베이커리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본관·별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별관의 넓은 창가 자리와 야외 정원에서는 여유롭게 음료와 빵을 음미하기 좋다.

특히 바질토마토 소금빵, 치아바타, 잠봉뵈르 같은 대표 빵 메뉴와 부드러운 에스프레소 계열 커피의 조합이 일품이며, 곳곳을 배회하는 귀여운 고양이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목·금·토·일만 문을 여는 만큼 주말마다 신선한 빵과 향긋한 커피를 찾는 방문객들로 늘 북적인다.

♥ 인기 메뉴 : 잠봉뵈르, 레몬소금빵

4. 카페 너머

조치원의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 너머'는 아늑한 분위기와 뛰어난 커피 품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다양한 원두를 이용한 핸드드립 커피는 커피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드럽고 진한 맛의 티라미수도 이곳을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이다.

♥ 인기 메뉴 : 핸드드립 커피, 티라미수



취재 : 뉴스레터 5기 이창민('20)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새내기 인터뷰

푸릇푸릇 새내기들과 설레임을 함께하다.

양진영, 정건호, 윤다현, 김재운 학우를 만나보다.



▲양진영 학우



▲윤다현 학우



▲김재운 학우



▲정건호 학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진영 학우 >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영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공지능과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젝트와 학습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도전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윤다현 학우 >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해킹을 공부하고 있는 윤다현이라고 합니다.

김재운 학우 >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5학번 새내기 김재운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캐릭터 핑구 텐션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MBTI에서 E가 100%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분위기를 이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건호 학우 > 안녕하세요. 25학번 신입생 정건호입니다.

Q.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양진영 학우 >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이라는 미래 핵심 분야를 융합한 학과가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고, 저의 진로 목표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래인재전형을 통해 저처럼 실적과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윤다현 학우 > 특기자 전형으로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이전 수상 실적만 제출할 수 있어서 아쉽게도 지원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는 해킹 분야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김재운 학우 > 사실 사이버보안 쪽으로는 경험이 없지만, 인공지능과 개발 중심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이버보안과 블록체인 분야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고, 또한 특기자 전형이 절실했기 때문에 미래인재전형이 있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건호 학우 > 고등학교때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도 한 경험이 있어, 실기나 실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를 찾던 중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안 관련 공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학과 커리큘럼을 보니 정말 배울 것이 많다고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미래인재전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양진영 학우 > 미래인재전형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는, 고등학교 시절 어떤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AI 관련 대회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능력과 경험을 쌓아왔고, 그러한 점들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다현 학우 > 미래인재전형은 체육 특기자 전형처럼, 고등학교 시절 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활동과 재능을 보여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꾸준히 활동한 경험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김재운 학우 > 미래인재 전형은 쉽게 말해 특기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는 대외활동이나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전형이며, 실무 경험이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건호 학우 > 이 전형은 실기/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고등학교 성적 외에도 개인의 실적과 활동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컴퓨터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온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Q. 본인의 어떤 강점이 합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진영 학우 > 제 강점은 문제 해결 능력과 주도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환경에 맞춰 친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웹앱을 직접 개발한 경험이 있었고, 시 대회에 도전하면서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다현 학우 > 그냥 제가 해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잘 포장하거나 과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활동을 솔직하게 어필했습니다.

김재윤 학우 > 제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성격과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태도가 합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발 위주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는 개발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즉 해킹의 실력도 중요한 학과입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 학과에 와서 잘 버틸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성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건호 학우 >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교와 대학교 근방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혹은 맛집이 있을까요?

양진영 학우 > 학교 근처에 있는 ‘한솔도시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바쁜 대학 생활 중에도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어요.

윤다현 학우 > 아직 많이 다녀보진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취를 하면서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편이라 특별히 추천할 만한 식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술집 외에는 아는 곳이 많지 않네요.

김재윤 학우 > 개강한지 거의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새내기에게는 조금 버거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추천해보자면 '카페 너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료도 맛있어요.
무엇보다 그 카페에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맛집 추천도 빼 놓을 수 없죠. 선배님과 밥약을 했던 두 곳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신정문 앞에 위치한 "더라멘"으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맛집입니다.
두 번째는 혈떡고개를 넘어서 조금 걸어야 하는 "숫다"라는 식당인데, 가격대는 다소 있지만 솔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꼭 한 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건호 학우 > "씨티팝"과 "세종미트정육식당"이 괜찮았습니다.

Q. 많은 동기들이 코딩과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동기들을 위한 학습법이 있을까요?

양진영 학우 >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이라도 실습을 하면서 오류를 직접 겪고 해결해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윤다현 학우 > 예전에는 GPT 같은 도구가 없어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며 공부했는데, 요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그만큼 자기 성장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검색 능력'이 정말 중요하므로, GPT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며 학습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학우 > 저는 코딩을 거의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Python을 공부하신다면 《Jump to Python》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익힌 후에는 백준이나 CodeUp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강의를 필요하다면, 유튜브에서 “드림코딩 엘리” 채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건호 학우 > 저는 '프로그래머스'라는 문제풀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본인이 짠 코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Q. 동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대학 생활의 모습 혹은 프로젝트같은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양진영 학우 > AI와 보안 기술을 융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동기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캠퍼스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보는 등, 실질적인 결과물이 남는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윤다현 학우 >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킹, 컴퓨터 공학, 개발을 꾸준히 공부해왔는데, 진입 장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만 하다가 공부 끝나는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함께 대회에도 나가고, 그런 경험을 동기들과 함께 꼭 해보고 싶습니다.

김재윤 학우 > 저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코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인트라넷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사용 현황 확인, 열람실 좌석 예약 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정건호 학우 > 동기들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 많은 팀플 과제들이 예상되는데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양진영 학우 > 저는 팀장을 맡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자신 있습니다.

윤다현 학우 > 저는 기술적으로 핵심 파트를 맡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보다는, 실제로 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팀원들과 함께 코드를 맞춰가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도 좋아합니다.

김재윤 학우 >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발표가 포함된 팀 프로젝트라면 PPT 제작을 맡고 싶습니다.

'망*보드'나 '미*캔버스'를 사용하여 PPT 제작이 가능하지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Figma'라는 디자인 앱을 활용하여 제가 직접 PPT를 디자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디자인한 인스타그램 페이지 @kus.meal 한번 방문해보세요.

정건호 학우 > 저는 팀장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역할 분배를 통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현재 배우고 있는 기술 외에 앞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진영 학우 > 현재는 Python과 기본적인 머신러닝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화학습, 딥러닝 모델 최적화, 그리고 보안 관련 기술들까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시와 보안이 융합된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다현 학우 > 지금은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쓰기는 어렵지만,

여유가 생기면 LLM 분야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AP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트랜스포머 구조부터 attention 메커니즘, pretraining, fine-tuning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특히 parameter-efficient tuning 기법들이나 LoRA 같은 경량화 방식에도 관심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직접 파인튜닝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김재윤 학우 >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현재 학교 학식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주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kus.meal 인데요, 제가 최종 합격한 후 학식 정보를 찾으려다 불편함을 느꼈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일것이라 생각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건호 학우> 저는 사이버 보안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해킹과 보안 취약점 분석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및 해킹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대학 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양진영 학우 >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대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키우고, 대회에도 도전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경험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협업과 소통 능력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다현 학우 > 저녁에 잔디밭에서 맥주 한 잔 하면서 CTF를 같이 풀 수 있는 동기가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공부도 자연스럽게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김재윤 학우 > 현재는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제가 계획 중인 학교 인트라넷 프로젝트에 모바일 학생증 기능을 연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건호 학우 > 동아리, MT, 축제 등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가장 기대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고,

MT에서는 친목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 축제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Q.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양진영 학우 > 학과에서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전이나 해커톤에 도전하여 수상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해 AI 보안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학과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윤다현 학우 > 우리 학과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만큼, 입학 전부터 지금까지 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AI 분야가 흥하는 건 확실한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더 깊이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김재운 학우 > 비록 세종에 있지만, 민족고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고연전, 합동 응원전, 입실렌티 등 고려대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이 정말 기대되고, 무엇보다 내년 후배님들과의 '밥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 첫 밥약은 최세영 선배님 이었는데,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후배들에게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건호 학우 > 보안을 처음 배우는 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보안 관련 대회(CTF)나 공모전에 적극 참여하여 실전 경험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졸업 전까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양진영 학우 >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가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협력하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다현 학우 > 학교에서는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다니고, 낮을 가리는 성격이라 조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안, 개발, AI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부 메이트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재운 학우 > 혹시라도 제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bbiyakye7 팔로우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팔로우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학과 친구들은 많은데, 같은 과 친구들도 하나둘 만들어가야죠. 저희 25학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동기 여러분, 앞으로 친해져요!

정건호 학우 >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공 지식을 확실히 익혀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협업 능력도 기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배움과 도전이 기대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찬위원

위원장	최수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1학번)
위원	이창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0학번) 정회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4학번) 심재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4학번) 양희지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4학번) 고건우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5학번)

집필분담

이창민('20)
대학원생 인터뷰 추천 맛집
정회민('24)
최두호 학과장님 인터뷰 학생회 인터뷰
심재규('24)
동아리 인터뷰 학과 MT
고건우('25)
곽병일 교수님 인터뷰 새내기 인터뷰

발행일	2025년 07월 16일
편집인	최수빈('21), 양희지('24)
감수위원	김희석 교수님
발행처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